



10

먼동

서중부 꾸르실료

은총 안의 삶

+ 데 꼴로레스!

서중부 꾸르실리스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클랜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성당의 김광근 도미니꼬 신부입니다.

제 14 차 서중부 전체 울뜨레야를 맞이하여 꾸르실리스타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울뜨레야가 여러분께 꾸르실료 기간 동안에 체험했던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느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그러하시겠지만 꾸르실료 교육 중에 느꼈던 그 강렬한 느낌은 저 역시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분단 성체 조배 중에 느꼈던 하느님 현존에 대한 강력한 체험, 그리고 꿈꾸는 듯 멀리서 들리던 마나니따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꾸르실료 지도를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되 살아 나는 것은 처음에 꾸르실료 기간 중에 받았던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서중부 울뜨레야의 주제가 “은총 안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총 안의 삶”이라 함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은총 안의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자의 기도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에 꾸르실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에서는 금방이라도 성인이 나올 것 같은 강한 열기를 느끼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전의 모습으로 싱겁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이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꾸르실료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느님의 모습이 피상적으로만 느꼈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앞에 계신, 실제로 살아계신 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소중한 체험이고,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주님의 은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은총 안의 삶이란? 바로 내가 나아가면서 하느님을 생생하게 느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 분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은총 안의 삶”인 것입니다.

울뜨레야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모두 행복하십시오. 아멘.

드리는말씀

오랜동안 없었던 서중부 꾸르실리스타들의 소식지 "먼동" 을 다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하여 꾸르실료운동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소식교환 도구로 써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글 그리고 아이디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최요한 드림

사무국 소식

• 서중부 전체 올뜨레아



2009년 전체 올뜨레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꾸르실리스타스님들이 참석하시어 주님을 위한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꾸르실리스타는 각 본당 간사님들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십시오.

다 음

일시: 10월 17일 (토) 오전 9시- 오후 5시
장소: 성 마이클 샌프란시스코 한인 성당
대상: 각본당 꾸르실료 주말을 수려받은 꾸르실리스타 교우
초빙강사: 정 부라이언 북미주 꾸르실료 지도 신부님
지참물: 길잡이, 이름표, 아침, 점심 식사 제공
접수비: \$ 20. 접수용지: <http://koreancursillo.com>
올뜨레아 포스터 :

http://koreancursillo.com/docs_public/2009ultreya/2009ultreya-poster.jpg

• 서중부 꾸르실료 지도 신부님 선임

이번 북가주 사제 협의회에서 오클랜드 김 광근 도미니꼬 신부님께서 꾸르실료 지도 신부님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주소 수집 협조 요청

서중부 사무국 소식및 연락으로 이 메일을 쓰기 시작 할 계획입니다. E-mail 을 쓰시는 모든 꾸르실리스타들은 빠짐없이 각 본당 간사님들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꾸르실료 남성 9 차 사진

다음 사이트에서 볼수있습니다

<http://koreancursillo.com/albums/2009-mens-9th-cursillo/>

타 꾸르실료 주말 실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꾸르실료 주말은 일년 내내 한주도 쉬지않고 세계 어느곳에서 실시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의 빨랑까, 우리도 그분들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꾸르실료주말을위하여 영적 빨랑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속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동북부 남성 제 31 차 (10월 15일 - 10월 18일)
- 미동북부 여성 제 1 차 청장년 영어 꾸르실료 (11월 19일 - 11월 22일)
- 캐나다 한인 여성 제 257 차 주말, 2009년 10월 15일-18일
- 남가주(서남부)에서 남성 제 30 차, 2009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각 본당 울뜨레아 소식

• 오클랜드 울뜨레아

Team 회합에 9 차 인원이 더해져서 열심히 되고 있음.

• 산호세 울뜨레아

9 차 이후 Team 회합이 잘 유지되고 있음.
울뜨레아 모임도 조금씩 활성화 되고 있음.

10 월 10 일 목주하면서 걷는 2 차 울뜨레아 "Walk-A-Thon" 을 실시합니다
아침 9 시 집합장소에서 모임 (성당 모임은 아침 8:30)
연락: 김로모알도 408-318-9544
http://koreancursillo.com/sanjose/Walk-A-Thon_map.pdf

• 샌프란시스코 울뜨레아

• Sacramento 울뜨레아

9 차 이후 Team 회합과 꾸르실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
울뜨레아 참석율이 점차 늘고 있음

기도 요청 (병에 시달리는 교우 등등...)

- 서중부 꾸르실료 지도 신부님 김 광근 도미니꼬 신부님을 위하여..
- 서중부 최초 한인 부제로 서품을 받으신 김 조셉 부제님을 위하여



1분 명상

이해인 수녀님의 '사계절의 기도' 중에서



나눔을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경건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바칠수록
남에게 더욱 빛나는 선물이 됨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